

찬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 28장)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멘

본문 민수기 6:22-27

-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찬양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2.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3.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후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세요!

추석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하세요

1. 가족 중에 예배 순서 담당자를 의논합니다.
2. 예배 공간을 마련합니다.
- 일상의 공간을 거룩한 예배의 공간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3. 성경책과 가정예배서를 탁자에 놓습니다.
4. 집에 있는 십자가를 탁자 위에 놓으면 더욱 좋습니다.
5.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가정예배 인도자는

1.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2. 가능한 가족 구성원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화목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도록 이끕니다.
4. 가족들에게 가정예배의 목적을 안내합니다.
-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2022

추석

가정예배서

2022 추석 가정예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민 6:22-27

예배의 부름 | 인도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가족이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깨닫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기 도 | 담당자

성경봉독 | 민수기 6:22-27 | 담당자

말 씀 |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 인도자

온가족기도 | 모든 가족

우리 가정의 주인되신 하나님,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 좋으신 하나님 | 모든 가족

주기도문 | 다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을 담아 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첫째로, 지키시는 축복입니다. (24절)

‘지키다’라는 말은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심하고 철저한 보호, 그 누구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앙과 근심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총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맘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은혜의 축복입니다. (25절)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타락했어도 우리에게 다가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베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난(chanan)입니다. 이는 ‘호의를 베푸다’, ‘궁홀히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궁홀과 자비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셋째로, 평강의 축복입니다. (26절)

여기서 평강은 평화, 번창, 우정 등의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기쁨이 가득한 평안을 말합니다. 외적으로 평화로운 관계일 뿐 아니라 내적으로 근심이 없고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세 가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27절).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의 선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